

공통질문은 #공동체 #진로... 자율질문은 #지원동기 다수

변경된 대입 자소서 어떤 것 묻나

전국 58개 대학 자소서 필요 문항 수·글자 수 모두 축소 문항별 요구사항 파악해야

2024학년도 대학 입시 자기소개서 폐지를 앞두고 올해 전국 140개 대학 639개 전형 중 58개 대학 267개 전형에서 자기소개서를 요구한다. 2022학년도 대입부터 자기소개서 작성 문항과 글자 수가 줄었고, 고려대와 서강대, 한국외대 등은 자기소개서를 제출 서류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경희대, 연세대, 성균관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은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올해도 자기소개서 제출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들 대학 지원 희망자들은 자기소개서 준비가 필요하다.

◆2022학년도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 어떻게 변했나

19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대학의 견을 수렴해 변경한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에 따르면, 올해대입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은 전체적으로 작년보다 축소돼 공통 문항 2개와 자율 문항 1개로 변경됐다. 대학교별 제출 서류



선생님과 상담하는 고3 학생.

/뉴스시스

양식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년 자기소개서 공통 양식을 마련하고 있다.

먼저 1번 문항에서는 진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2번 문항에서는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해야 한다.

전년도의 1번, 2번 문항이 합쳐져 1번 문항이 됐다. 지난해 각각 1000자와 1500자였던 1~2번 문항을 올해 학생들은 1500자로 기술해야 한다. 3번 문항은 글자 수가 지난해 1000자에서 올해 800자로 축소돼 2번 문항이 됐다.

이 두 개의 문항은 모든 대학에서 공통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반영하는 대학의 전형에 지원한다면 꼭 준비해야 한다.

◆대학마다 다른 자율 문항...최다 질문은 '지원동기와 노력 과정'

반면 자율 문항은 대학이 필요에 따라 추가할 수 있으며 그 내용도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어 자율 문항이 있는 경우 자기소개서 작성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대학별 자율 문항은 대체로 지원 동기와 이를 위한 노력 과정을 묻고 있으며 대학에 따라 향후 진로계획도 묻는다.

경희대, 동국대, 서울시립대, 성균관

<2022학년도 일부 대학별 자소서 3번 문항>

| 대학 | 내용 | 분량 |
|-------|---|----------|
| 경희대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준비 과정에서 배운 점. | 800자 |
| 동국대 | 고등학교 활동 중 전공 준비를 위해 노력한 과정을 바탕으로 지원 동기. | 800자 |
| 서울대 | 고교 재학기간(또는 최근 3년간) 읽었던 책 중 자신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을 2권 이내로 선정하고 그 이유. | 1권당 400자 |
| 서울시립대 | 지원동기와 향후 구체적인 진로계획.(학부/과 인재상을 고려) | 800자 |
| 성균관대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본인의 노력 | 800자 |
| 연세대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본인의 노력 | 800자 |
| 중앙대 | 추가적으로 학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 | 800자 |
| 홍익대 | 해당 모집단위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본인의 노력 | 800자 |

가나다 순(2021.7.12)

/각 대학별 모집요강 기준

대, 연세대, 홍익대 등은 '지원하게 된 동기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한 과정'으로 동일한 의미가 문항에 담겼다.

다만 서울시립대는 학부 인재상을 고려해 작성하라는 안내가 있어 학과 홈페이지에서 인재상을 미리 확인한 후 작성하는 게 좋다.

서울대는 독서 활동 경험에 대해 기술해야 하는데 2권 이내로 선정을 해야 하므로 자신이 읽었던 책 중 지원 학과와 관련이 있거나 자신의 특성을 잘 보여줄 수 있는 도서를 선정해야 한다.

중앙대는 학교생활 기록부 기재 내용 중 지원자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에 대해 기술해야 한다. 단, 작성할 내

용이 '진로와 관련해 의미 있는 학습 경험과 교내 활동'을 묻는 1번 문항과 중복되는 것은 지 유의해야 한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자기소개서의 공통문항이 두 문항으로 줄어들어 이전에 비해 서류 작성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었지만, 줄어든 글자수 안에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담아내야 하는 또 다른 과제가 생겼다"며 "또한 대학별 자율 문항의 경우 대학에 따라 묻는 내용이 조금씩 다르고 지원 대학의 교육 환경, 철학 등도 고려해야 하므로 상대적으로 많은 공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조언했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인천대 기숙사, 코로나 생활치료센터 '검토'

확진자 급증시 예비시설 활용 "지역사회에 적극적으로 도와야"

인천대학교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해 상황이 더 심각해질 경우 인천대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 예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인천대는 지난 16일 인천시와 학생대표들이 대화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인천대 기숙사를 인천시 생활치료센터로 사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인천시는 현재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경미한 증상의 확진자를 수용하기 위한 생활치료센터 시설 확보가 매우 시급



인천대 캠퍼스.

/인천대

한 실정이다. 인천지역 생활치료센터는 4곳으로, 정원 635명에 현재 500여명이 입소해 가동률이 80%를 육박했다.

인천대 관계자는 "지금처럼 어려운

상황에서 대학이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는 게 인천대 구성원들의 생각"이라며 "다만 인천대에서 수학중인 학생과 교직원 등 구성원의 수가 1만6000명에 달하고, 인천대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불안심리 등을 고려해서 불가피하게 기숙사를 생활치료센터로 활용할 경우 인천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대 기숙사에는 여름방학 중인 현재 900여명이 생활하고 있다. 비대면 수업을 진행하는 학기 중에는 최대 2000여명이 생활해 기숙사 가동률은 대략 67%를 상회한다.

/이현진 기자



경희사이버대 한국어문화학과·글로벌한국학전공 교수와 동문들이 미얀마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성금을 전달했다. (왼쪽부터) 서진숙·김지형·방성원·장미라 교수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경희사이버대

경희사이버대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성금

교수진·학생회·동문회 힘 모아

경희사이버대학교는 15일 한국어문화학과 교수진과 학생회·동문회, 문화창조대학원 글로벌한국학전공 원우회에서 미얀마의 평화와 시민의 안전을 기원하며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에 성금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더해 한국어문화학과 학생회

와 동문회, 대학원의 글로벌한국학 전공 원우회 등 한국어 교육을 전공하는 구성원도 성금을 지원했다. 미얀마 민주주의 네트워크의 정범래 공동대표는 "미얀마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생존 텐트와 식량 지원 등 필요한 분야에 잘 쓰겠다"며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다.

/이현진 기자

김용경 경동대 교수 한말연국학회장 선임

김용경 경동대학교 한국학과 교수(사진)가 지난 16일 개최된 한말연국학회 총회에서 제18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임기는 2년이다.



한말연국학회는 우리 말과 글의 연구를 목적으로 1986년 설립된 한국어학 분야 대표적 학술단체로, 매년 2회의 정기 학술대회를 열고 연 4회 학술지 '한말연구'를 발행해 오고 있다.

김용경 교수는 외국어로서의 한국어 교육을 담당하는 학부 및 대학원 학과 협의체인 한국어교육학회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겨레어문학회장을 맡고 있다.

/이현진 기자

세종대 북한이탈 청소년 진로프로그램 운영

특강·포트폴리오 작성 등 진행

세종대학교 대학일자리사업단은 광진정보도서관과 연계해 북한이탈주민 독서문화프로그램 지원사업인 'Book(북)돋움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19일 밝혔다.

프로그램은 지난 4월 두리하나 국제학교에서 '진로 마인드맵 작성' 특강을 시작으로 오는 11월 15일 '진로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그램까지 총 7회에 걸쳐 진행된다.

북한이탈주민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과 서울도서관이 주최하고 광진정보도서관이 주관하는 프로그램으로 올해는 두리

하나 국제학교 소속 북한이탈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국사교육 및 역사유적지 방문, 도서관 견학 및 메이커스페이스 체험 등을 통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세종대 대학일자리사업단은 두리하나 국제학교 북한이탈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과와 유망산업 직군 연결을 통한 진로교육으로 한국사회 적응을 꾀하고 졸업 후 대학진학 및 취업을 하는데 있어 개인별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도록 ▲코로나19시대 이후 주목받는 직군과 소외받는 직군 ▲학과별 관련 산업, 직무소개 ▲나의 성격, 성향별 어울리는 직군탐색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성신여대,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

성신여자대학교 인문도시사업단이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21년도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인문도시지원사업은 대학·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민에게 인문학을 접할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의 인문자산을 전파하는 사업이다.

이번 인문도시지원사업에 선정된 성신여대는 '커먼즈로 인문 강북 만들기'를 주제로 올해 7월부터 3년간 강북구

민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문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커먼즈란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사용하는 자원을 지속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사회 체계 전체를 의미하며, 오늘날 혁신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공동체의 토대가 된다. 성신여대는 이번 사업으로 강북구청, 연구자 공동체 사회주택 및 인문학 연구 인력 등과 함께 강북구를 서울의 대표적인 인문학 거점 지역으로 브랜딩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이현진 기자